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과 기독교상담

김 상 인*

국문초록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과 정서, 그리고 영성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언어폭력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시작되는 정신적 학대이다. 언어폭력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언어폭력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언어폭력은 가정구성원들에게 영적인 미성숙을 초래하게 된다.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언어폭력은 이혼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언어폭력의 후유증은 신체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언어폭력 자를 만든다. 언어폭력은 비난, 모독, 위협, 협박, 공포, 혐오, 경멸, 큰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의미한다. 언어폭력의 원인은 개인내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사회 문화적 이론, 그리고 대중 매체이론이 있다. 언어폭력의 유형은 부부 간의 폭력,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폭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언어폭력의 결과는 자존감상실, 정서적 학대, 수치감과 열등감, 언어폭력 가해자, 그리고 영성 미성숙을 논 했다. 언어폭력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중보기도와 성령, 성경읽기와 쓰기, 그리고 가정예배를 연구 하였다.

중심단어 : 언어폭력, 자존감 상실, 정서적 학대, 중보기도와 성령, 가정예배

•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2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2일

* 성결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4월 28일

I. 여는 글

가정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의 기본 집단이다. 결혼은 남녀를 부부관계로 만들고 부모와 자녀 관계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매우 기뻐하셨다(창2:26-31).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정 공동체는 죄와 고통,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마음의 폭력¹⁾으로 인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오늘날도 가정 구성원 간의 폭력은 극한 상황에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 폭력은 부부 폭력,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형제자매 간의 폭력, 그리고 조부모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가정 구성원 간의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심지어 성폭력 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는 상담현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면서 대부분의 폭력이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물리적인 폭력이 언어폭력을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어폭력은 기독교 신자의 직분과 신앙생활의 기간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정 구성원 간의 자행되는 언어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언어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말로써 직간접적으로 가하는 폭력으로 정신, 심리, 신체, 그리고 영성에 피해

1)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창:4:5-6).

를 주게 된다. 언어폭력은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에게, 심지어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자존감 상실과 정서적 파괴 등에 따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인격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며 가정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²⁾ 또한 언어폭력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만 정서적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그 폭력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정서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³⁾ 언어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체 및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은 열등감, 우울증세, 정서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이 결혼 후에 가정을 가지게 되면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전락하는 빈도가 높다.⁴⁾ 언어폭력 가해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말과 학대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언어폭력을 더 큰 충격으로 인식 하고 있다. 언어폭력 자들은 신체폭력 만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왜곡된 언어폭력의 인식은 가정 내에 언어폭력을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가정 내의 신체적인 폭력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로 인하여 대처와 회복이 비교적 용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그 증상이나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인 정서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aftereffect)이 크다. 언어폭력은 신체폭력보다 마음의 상처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⁵⁾ 본 논고에서 연구자는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언어폭력의 개념과 가정 내의 언어폭력을 설명하고, 언어폭력의 원인, 유형, 결과, 그리고 가정 내의 언

2) 권복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1999, 3): 9-39.

3) 고복자,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1992, 5): 56-72.

4) 김기환,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회복지조사연구」 제2호(1995): 26-45.

5) "언어폭력이 주목보다 무섭다", 「동아일보」, 1998.08.06.

어폭력에 대한 기독교 상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1.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실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정 구성원들에게 위기감, 불안감, 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가정 파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D 재혼정보회사가 재혼을 준비하는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배우자’의 유형 질문에 절대적인 1위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71%)’이었다. 그 다음이 ‘도박에 빠진 사람(17%),’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10%),’ ‘바람기가 있는 사람(4%)’ 등으로 나타났다.⁶⁾

가정폭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다. 특별히 언어폭력이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별히, 5~8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8세를 둔 부모 90%(991명)가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들은 언어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70% 이상이 여전히 언어폭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의 Richard Weinberg는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은 얼굴을 때리는 것보다 더 교육상 나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학력이 높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적으나 모든 부모에게서 언어폭력이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심각한 가정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연구자의 상담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내 언어폭력에 대해 민감하기 보다는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언어폭력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

6) “언어폭력”, 「조선까페」, 2008.04.24.

7) “가정폭력이대로 좋은가”, 「미국 LA 중앙일보」, 2000.08.15.

하지만 말로써 하는 폭력의 표현에 대해서 관대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언어 폭력은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상관과 부하 사이처럼 말의 강자와 약자가 뚜렷이 구분된 관계일수록 빈번하게 이루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 폭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사이에 말의 강자와 약자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심한 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이것은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해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 시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55세 이상의 황혼이혼은 갈수록 늘어 2002년 통계보다 2배나 증가 했다. 황혼이혼을 감행하는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절반 이상이 ‘성격이 안 맞아서’ 였다. 이것은 부부의 대화 즉,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소송 중인 부부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폭언·폭행 때문에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서”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폭언·폭행으로 이어지고, ‘말의 약자’는 점점 정신과 정서가 황폐해지게 된다는 것이다.⁸⁾

1956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언의 수차례 반복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판시가 있다.⁹⁾ 21세기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언어폭력에 대해서 폭행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언어폭력은 분명한 폭력이다. 1998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 언어폭력을 정신적 심리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2003년 판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를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¹¹⁾ 이처럼 가정은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접근하기가 용이 하여 가정구성원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폭언을 할 수 있다. 부

8) “언어폭력”, 「조선까페」, 2008.04.24.

9) 1956년 12월 12일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0) www.mogef.go.kr

11) 2003년 1월10일 대법원 판례, 선고 2000도5716 판결.

모가 거실에서 자녀가 있는 방으로, 부모 방에서 자녀 방으로, 그리고 부부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이것 역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이라는 점이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부부사이, 자녀에 대한 부모 폭력과 더불어 노인을 향한 언어폭력의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상반기 보고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언어폭력이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등으로 나타나 언어·정서적 학대가 제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으로 야기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처럼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상하관계를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다.

얼굴뼈 전문병원인 아이디병원이 2009-2010년 동안 상담을 의뢰한 남녀 205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에 관련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는 언어폭력을 경험한 79.5% 경우가 화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들은 얼굴표정 때문에 오해 받은 경우가 27.8%, 발음 등을 지적 받은 경우도 27.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이 55.1%, 우울증 42%, 그리고 25.4%가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얼굴뼈 부정교합으로 큰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 조사는 언어폭력이 정서와 정신은 물론 얼굴 유형과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

12) “이젠 노인에 대한 언어, 정서적 학대도 처벌 받는다”, 「전남조선뉴스」, 2011.03.12.

13) “언어폭력의 마음의 상처”, 「조선일보」, 2011.03.12.

2. 언어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간의 언어폭력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즉, 무시하거나 시선폭력(강하게 경멸하는 눈빛)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정서에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은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감 주기,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것,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생각이나 느낌을 무시하는 것,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폭력은 위협적인 모습과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거부감을 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일방적인 요구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정신이상자로 믿도록 비방하고 이중적인 언어 혼란을 주는 것,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말투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¹⁴⁾

언어폭력은 욕설, 모욕 등의 말을 통해 혐오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 언어폭력은 '모욕죄' 정도로 다스리거나 '경범죄처벌법' 으로 다스리기도 한다. 일반적인 죄목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다.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말로써 무분별한 욕설과 수치심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이다. 언어폭력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보다는 가정 구성원 간의 폭력이 더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언어폭력은 주로 남편이 아내를 하위 체계로 생각하여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욕을 주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하거나 위협과 협박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언어폭력은 말로써 약자와 노인을 위협하고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대화하지 않고 노인을 어린애처럼 다루는 것을 포함 한다.¹⁵⁾

14) 여성가족부 · 용인성폭력상담소 편,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서울: 용인성폭력상담소, 2007), 39, 139.

15) 이해임 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교육", 『전문강의 매뉴얼』 (서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부, 2004), 33, 233-236.

3. 가정 내의 언어폭력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정폭력이라는 의미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불안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 그리고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다. 가정 내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비신체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비신체적 폭력은 언어폭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언어폭력은 주로 양육자인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발생한다. 언어폭력은 부모의 의도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피해를 의미한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정신과 정서의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부모나 양육자가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발언, 외모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그리고 가정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협박성 양육, 그리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인신공격성 대화를 주고받는 것 역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형태이다. 언어폭력은 원망적 언어, 위협적 언어, 경멸적 언어, 그리고 적대적 언어를 말한다. 원망적 언어는 부모의 불행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어 말하거나 남편이 자녀의 부정적인 상황을 아내나 자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적 언어는 강한 어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하면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다. 경멸적 언어는 상대방을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비아냥거리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언어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적대감의 표출로 원망과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언어폭력이 현대 가정에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16) 김연옥·박인아,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제5호 (2000): 103-127.

4. 언어폭력의 원인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장 빠르게 학습 되는 폭력의 한 형태이다.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한 자녀는 친구관계와 결혼생활에서 언어폭력 내지는 물리적 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연구자의 상담경험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들 대부분이 원 가정에서 신체 및 언어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언어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면서 점점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되어간다는 것이다. 언어폭력의 원인은 개인 내적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그리고 대중매체이론에 대해서 설명 한다.

1) 개인 내적 이론

이 이론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자 또는 염색체의 이상, 개인 내적 병리현상 즉, 성격이상으로 공격적 성격, 성격장애로 인한 폭력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 이론은 정신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 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 감각의 왜곡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이나, 정서와 행동 간에 부조화내지는 분리되어 있는 정신분열에 의한 폭력이 발생 한다는 이론이다.¹⁷⁾ 이 이론은 정신병리학 모델로서 가해자의 개인 내적인 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는 것이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성격적인 결함, 정신병, 사회병리학, 그리고 알코올중독과 약물남용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이론이다. 또한 가해자 개개인이 비정상적인 심리 특성과 요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시 공격성, 의존성, 낮은 자존감, 그리고 손상된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 한다. 이러한 특성은 강박장애, 편집증, 경계선적 성격 등에 대해서 강박 증상으로 연결하여 설명되기도 한다.¹⁸⁾ 이 이론은 언어폭력이 전적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손상된 심리적 정황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려는 이론이다.

17) Arthur S. Reber & Emily S. Reber,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3rd ed. (London: Penguin Books, 1985), 429, 650.

18) 김상인 편, 『상담심리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샘, 2006), 11-12.

2) 사회 심리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인 원인론과 귀인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인론은 교환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좌절-공격이론¹⁹⁾, 그리고 갈등이론이 있다.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돈, 명예, 지위, 애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극한 행동으로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 모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폭력을 행사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람이 개인 내적 성격상 폭력 성향이 전혀 없었더라도 부모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을 자주 접함으로써 가해자가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자주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언어 폭력가해자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좌절-공격이론은 가정과 주변 환경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면서 언어적 공격 행동을 하지만 반대로는 우울,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요인들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이론은 가정 구성 간의 권위나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언어폭력과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 한다. 언어폭력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내부귀인이론과 외부귀인이론으로 구분된다. 내부귀인이론은 어떤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부성향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노력, 능력, 성격, 태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외부귀인이론은 행위자의 외부상황으로 어떤 일에 대한 난이도, 날씨, 주변 환경에 의해 귀인 되어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그의 다른 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⁰⁾

19) 좌절-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은 원하는 것이나 목표로 하는 것을 갖거나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것은 기대했던 기쁨이나 쾌락이 실현되지 못하면 곧바로 분노의 반응으로 이어진다. Reber & Reber,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287.

20) 여성한국사회연수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5), 353-363.

3) 사회 문화적 이론

이 이론은 사회의 구조적인 면과 규범, 가치관, 체계 등의 잘못된 원인으로 행해지는 폭력 즉,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 남녀 차별의 문화적 가치관 등이 언어폭력을 부추긴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 구조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 되거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약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언어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으로 용인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별히 약자 즉,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보지 않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한국문화 사회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가정 구성원의 언어폭력이 용인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 문화적 이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4) 대중 매체 이론

이 이론은 인간의 환경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방법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이론은 신문, 잡지, 만화, 소설, TV., 영화, 비디오, 음악 등을 시청각적으로 반복하여 접함으로써 충동적으로 폭력행위와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²¹⁾ 현대인들은 과학문명이 발전 하면서 인터넷과 같은 영상 대중 매체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자주 많이 접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공격적 성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대상으로 가정 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언어폭력물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언어폭력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량과 횟수에 따라서 언어폭력의 수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상담현장에서 연구자는 폭력물을 자주 접하는 자녀들일수록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경험했다.

21)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가족과 한국사회』, 353-363.

지금까지 논 한바와 같이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어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언어폭력 가해자가 되기가 쉽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대인관계와 사회구조 가운데 언어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신체적 폭력에 비해 언어폭력에 대해 관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의식이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을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하고 묵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간접적으로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언어폭력의 경험은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식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5. 언어폭력의 유형

1) 부부 간의 언어폭력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은 가정 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결혼생활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언어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피해자는 정서적 폭력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아내학대, 아내구타, 부부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들이 특별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 할 것은 부부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언어폭력은 때로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많은 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혼으로 이어진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부부 간의 언어폭력은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²²⁾ 언어폭력은 배우자에게 당하는

22) 김광일,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 (1998): 174-183.

수치심과 정서적 박탈감을 동반하여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부 간의 언어폭력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언어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감이 높으며, 학습 능력이 저조하다. 또한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한 자녀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폭력적이라는 점이다. 연구자의 상담 경험에 의하면, 언어폭력은 대부분의 부부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자주 나타나는 부부일수록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2)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폭력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과 관심과 칭찬을 주기도 하지만 언어폭력도 쉽게 한다. 평상시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부모의 언어폭력에 대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부모의 언어폭력은 그동안 자녀에게 주었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자녀는 선택적 함묵증²³⁾과 욕설, 그리고 폭력 같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복수하는 경향 있다. 언어폭력은 부모 자체가 원 가족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자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자체가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가운데 언어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언어폭력은 비신체적 폭력이며, 심리적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원망적, 위협적, 거부적, 적대적 언어폭력 등이 있다.²⁴⁾ 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개방적인 사회가 되면서부터 차츰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자도 상담현장에서 자녀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을 종종 접하고 있다. 부부폭력을 가정에서 경험한 자녀는 부모폭력을 자행 할 경우가 최

23) 함묵증(mutism)은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만 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언어적 능력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특정한 장면에서 언어적인 활동을 기피하는 방어기제다. Reber & Reber,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453.

24)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1), 15-17.

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자녀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참고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왜곡된 인간관계, 분노, 적개심 등의 정서를 고양시키게 된다. 이것이 후에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3) 형제자매 간의 언어폭력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또 하나의 유형은 형제자매 간의 폭력이다. 이들이 언어폭력을 습득하는 경로는 일차적으로 부모이며,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관계에서 배우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 즉, 영화나 게임,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배우는 경우가 있다.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한 자녀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서로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게 된다. 형제자매 간의 언어적 폭력을 목격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훈육하고 꾸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을 언어폭력자로 만들어 주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부모의 언어폭력에 자주 노출된 자녀들은 서로에게 폭력적이게 된다.²⁶⁾ 가정 내의 형제자매 간의 언어폭력인 조롱, 헐박, 위협하기, 멸시, 모욕하기, 무시하는 발언하기, 그리고 별명 부르기 등은 자존감 상실과 정서적 학대의 원인이 된다.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안과 우울, 자존감 상실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주게 된다. 부부 간의 언어폭력은 자녀들 사이에 언어폭력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언어폭력 뿐 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까지도 자행하게 한다. 또한 자녀들의 언어폭력을 목격한 부모는 또 다시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은 악 순환적이어서 서로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반복하게 만든다.

25)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7-9.

26) 김기환,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26-45.

6. 언어폭력의 결과

부모의 언어폭력은 자녀들의 정서와 지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정신적 문제로 일생을 보낼 확률이 높다. 언어폭력은 공격적인 언어습관, 경멸, 모독감, 그리고 수치감을 주게 되며, 언어폭력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가정 내에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위기감이 상승되거나 불안한 상황이 될 때에 역시 언어폭력을 행할 확률이 높다.²⁷⁾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에게 돌아와서 다시 가정에 영향을 준다. 언어폭력의 결과는 자아 존중감 상실, 정서적 학대, 수치감, 언어폭력 가해자, 그리고 영적미성숙에 영향을 준다.

1) 자아 존중감 상실

자아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그 예로는 자아개념, 자신감, 자기수용, 자아정체감²⁸⁾, 자기평가, 유능감, 자기존경 등이 있다.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과 특별히 혼동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학자들은 동일개념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자아 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하위 개념이나 부분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자아 개념은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부터 형성한 상이라고 한다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27) 김연옥 · 박인아,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103-127.

28)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Reber & Reber,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662.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²⁹⁾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서 상실내지는 미성숙으로 나타난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해자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대부분 실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은 부적절감, 무가치감, 자기 경멸, 소외감 등을 느낀다. 자아 존중감의 상실은 이성 친구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자기 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성(性) 문제, 섭식장애, 알코올과 약물 남용,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³⁰⁾ 등이 나타난다. 또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몸무게 감소(거식) 및 증가(비만), 키 성장 저하, 성격이상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폭력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서로에게 폭력적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폭력자로 노출되기 쉽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즉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와 동일시함으로써 어머니가 경험하는 공포감, 우울 증상을 나타내거나 반대로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무의식적으로 가해자처럼 언어적 폭력 자가 된다. 이것은 가정 내 부부의 언어폭력이 자녀들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피해와 학습된 공격성으로 인한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방치되기도 한다.³¹⁾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

29) Glenn R. Schiraldi *The Self-Esteem Workbook* (Oakland, CA.: New Harbinger, 2001), 39-41.

3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삶의 있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심하게 주는 사건이나 환경을 경험한 후 찾아오는 스트레스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살면서 겪는 시련 등이 있다. 김상인 편, 『상담심리용어사전』, 117.

31) 조미숙,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4호(1999): 295-325.

게 된다. 자존감이 낮은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 자신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감과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된다. 언어폭력을 받고 성장한 자녀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행동, 무감각, 우울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불안과 위협 속에서 종종 심각한 불안, 과도한 공포, 과도한 의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폭력을 외면화하기도 한다. 이런 자녀들은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릴 수 있으며, 늘 상대방에게 대항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된다.³²⁾

2) 정서학대

가정폭력에서 신체적인 학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정서적인 학대로 낮은 자부심과 우울증을 수반하게 된다. 가정 내의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에게 행한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위협은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충격 그 이상이다.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정서 학대는 피해자에게 그 당시에는 모멸감과 우울과 공포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불안과 더불어 언어폭력 가해자 내지는 학대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언어폭력은 말에 의한 모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는 말로써 자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기, 비웃기, 조롱하기, 모욕하기, 거부하기, 적절하지 못하게 약 올리기, 아이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32) 조미숙 · 이윤로, “아내구타가정과 아동의 적응: 연구 논점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5호(1999): 1-22.

지나친 요구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기, 그리고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아이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반응해주지 않거나,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발생된다. 언어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등 정서적 발달에 방해를 받는다. 부모가 자녀를 언어폭력을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 할 경우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증오가 생긴다. 그 결과 자녀는 수동적으로 되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거부당하며 성장한 자녀는 신체폭력을 통한 고통에 비교할 만큼의 고통과 그 이상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못생겼다거나, 멍청하다거나, 못된 아이라는 메시지나 분위기를 느낄 때 정서적 학대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자녀는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결점에만 집중한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말로써 거부당한 경험을 내면화하게 되면, 곧 부모의 거부를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자녀는 자아 발달에 장애를 입게 된다. 이 자녀는 자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자기상과 낮은 자존감으로 몰고 가는 정서적 학대를 스스로 만든다. 이처럼 부모의 언어폭력은 정서적 학대를 내면화하든 외면화하든 자녀에게 치명적인 정서적·정신적 학대가 된다.

3) 수치심과 열등감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수치심으로 열등감을 갖게 한다. 수치심은 어떤 일과 대인관계에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떳떳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가정 구성원 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만든다. 수치심은 사람에 따라 열등감과 통증, 그리고 부끄러움을 동반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잘못된 언어 표현들은 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본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생각 없이 한마디 하는 언어폭력으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수치심의 내면화는 열등감과 다양한 중독, 그 밖의 다양한 역기능적 성향들로 자신을 파괴하며 정신적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 부모가 자신의 기본대로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을 할 때에 그 자

녀는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비난과 체벌, 비인격적인 분노의 표현 등이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³³⁾

열등감은 자신이 타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감정으로 잘못된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된다. 열등감은 부적절, 부족, 무능력의 느낌, 자기 의심, 그리고 낮은 자존심이 발생하게 된다.³⁴⁾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엄마로써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열등한 관계로 하위 체계에 머물게 된다.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엄마는 열등감 극복을 위해 자녀에게 언어폭력을 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자녀는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열등하게 행동 한다. 그런가하면, 열등감을 경험한 자녀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폭력의 행동을 하게 된다.

4) 언어폭력 가해자

가정 내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들은 언어폭력 가해자가 되기가 쉽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 상황과 불안이 오면 언어폭력을 행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대처하게 된다. 부부 언어폭력은 자녀 즉, 형제자매 간의 언어폭력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자녀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어폭력 가해자가 된다. 이것은 언어폭력 피해자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훈육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폭력 자가 되며, 올바른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체벌의 유형으로 언어폭력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훈육의 결과와는 별개로 자녀들을 언어폭력자로 만든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어폭력을 선택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다.

33) 조미숙,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295-325.

34) Clyde M. Narramore,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Problems*, 김연 역, 『이상심리학 백과사전』 (서울: 보이스사, 1996), 270-272.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에 대한 언어폭력을 자주 반복해서 겪게 된다. 연구자의 상담경험에 의하면, 현재 자녀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 양육태도에 있어서 먼저 언어폭력을 했다는 것이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정 내의 언어폭력자와 사회 속에서의 언어폭력 가해자를 만든다.³⁵⁾

5) 영성 미성숙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정서적, 심리적 학대, 그리고 영성 미성숙을 초래한다.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한 여자들은 왜곡된 사고와 정서적 불안감으로 영성성숙에 방해를 받는다. 영성성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련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성성숙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³⁶⁾ 또한 언어폭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성 경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정 내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반대하거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신앙형태를 가지게 된다. 부모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부정적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언행으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과격한 언행을 한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교회생활에 있어서 움츠리거나 적극적인 대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회생활에 있어서 영성 미성숙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언어폭력의 노출된 자들은 건강한 영적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언어폭력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영

35) 김재엽,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1997): 30-40.

36) 김병원, 『목회상담학』(서울: 한국성서대학교출판부, 2003), 119-120.

성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7.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인지하게 하고 수정 할 수 있도록 대화법 같은 훈련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가해자 역시 피해자임을 이해시키면서 상처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I message” 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면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상담 이후에는 반드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feedback 대화” 로 충분히 주고받는 가운데 언어를 수정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빈 의자와 심리극(psychodrama) 같은 심리치료를 통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경험을 하게 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언어폭력에 노출된 가정은 구성원 서로가 가족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언어폭력이 잘 못된 것임을 개개인이 의식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일반상담에서는 심상요법,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 음식 섭취, 약물치료 등으로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서적 안정과 언어 순화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뉴에이지의 한 부류로써 일시적이며 미혹의 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되기 쉽다는 이유로 기독교 상담에서는 거부한다.³⁷⁾ 더욱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즉, 영이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면, Martyn Lloyd-Jones이 「의학과 치유」란 책에서 지적 한 대로 일반상담의 방법들은 증상을 단순히 진정 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³⁸⁾ Eduard. Thurneysen 역시 심리학과 의학

37) 「국민일보」, 1997.05.14.

38) Martyn Lloyd-Jones, *Healing and Medicine*, 정득실 역,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42.

적 치료 방법을 인정하면서도 영육적인 치료로써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⁹⁾

언어폭력으로 인한 수치심과 열등감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수치감과 열등감은 실패감정으로 피해자 스스로가 아픔을 되풀이 하게 된다. 자존감 상실과 정서적 확대는 신앙생활과 영성성숙에 방해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 영성성숙을 상담하고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 하는 것은 영성성숙과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열등감 극복과 수치심 극복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연구자는 가정 내의 언어폭력에 노출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중보기도와 성령, 말씀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중보기도와 성령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정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로 정서적 영적 고통을 받게 된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가정 구성원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고통이 있다. 가해자는 이러한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시 언어폭력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더 많은 부분에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피해자가 후에 가해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때에 이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피해이다. 이러한 가정문제는 기독교 상담학적 입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로 극복 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영적 성숙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만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구체적으로 서로에 아픔과 잘 못에 대해서 수정될 것과 위로 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성령은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아를 통찰 할 수 있

39) Eduard Thurneyse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199.

도록 돕는다.⁴⁰⁾ 성령은 가해자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폭력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언어폭력으로 정서적 상처와 수치심과 열등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회복을 돕는다. Lawrence J. Crabb은 상담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painful emotions)들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느낌(spiritual feelings), 죄와 관련된 감정들(sin-related feelings)을 갖도록 도우신다. 또한 성령은 내담자들에게 고요함(quietness), 함께함(togetherness), 그리고 평안함(peacefulness)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다.⁴¹⁾ David A. Seamands은 성령이 인간(내담자)의 마음을 열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시며, 인간(내담자) 마음의 가식된 모습을 벗겨내신다는 것을 강조했다.⁴²⁾ 성령은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신다. 중보기도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중보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행위이다.⁴³⁾ 중보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라면 중보기도는 서로의 영성 성숙을 위한 것이다. 중보기도는 영적 힘을 공급해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게 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은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성령은 가해자를 예방차원과 절제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 하면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위로와 절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40)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상담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63.

41)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7), 159-160.

42) David A. Seamands,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27.

43) 명성훈, 『중보기도학교 인도자용 지침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13.

44) 전용복, 『생명력있는 기도 중보기도』 (서울: 두란노, 1999), 28.

중보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덧입게 된다.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은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영적 성숙을 주신다.⁴⁵⁾ 성령은 중보기도를 하는 자의 가정환경과 상황을 도우신다. Del Tarr는 성령이 내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도우시는 분으로 강조하였다.⁴⁶⁾ 이것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상황의 영역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내담자의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 성령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가정의 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도우실 뿐 만 아니라 그 가정환경(분위기)을 도우신다.⁴⁷⁾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중보’는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중보의 의미는 예수께서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것을 말한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고 회복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성령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회복과 위로를 돕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신다.

2) 말씀 읽기와 쓰기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성경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핵심으로 은혜의 방편 주에 하나이다.⁴⁸⁾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와 심리적

45) Joy Dawson, *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 김세라 역,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경기도: 예수전도단, 1989), 19-20.

46) Del Tar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 Counseling*, vol. I, *Theology & Theory*, eds.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5), 12.

47) Oliver McMahan, "Toward a Pentecostal Theology of Care and Counseling," in *Soul Care*, eds. John Kie Vining & Edward E. Decker (East Rockaway, NY.: Cummings & Hathaway Publishers, 1996), 46.

48) David G. Benner, "Psychotherapy and Christian Faith," in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ed. Stanton L. Jones (Grand Rapids, MI.: Baker, 1986), 157.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치유하심을 확신 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⁴⁹⁾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성경말씀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경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언어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성경본문을 찾아서 제시하고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읽어야 할 위로의 말씀과 용서와 사랑의 성경구절과 본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 하여 묵상하고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도와 줄 수 있다. 인간 마음의 구조적 변화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맞춰 질 때에 회복이 될 수 있다⁵⁰⁾ Sim I. McMillen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강조했다.⁵¹⁾ 성경은 삶의 올바른 자세와 안내와 깨달음을 제공해 준다. 성경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⁵²⁾ 성경을 읽고 쓰면서 사모하는 자는 성숙한 생활을 위한 자아개념의 정립, 올바른 대인관계, 건전한 생활태도를 안내받고 지도 받게 된다(딤후3:16).⁵³⁾ 성경은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절하게 돕는데 부족함이 없다.⁵⁴⁾ 성경은 읽고 쓰는 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용서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상처 받고 파괴된 심령을 회복시키는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⁵⁵⁾ 그러므

49) 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67), 217.

50)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0), 238. Adams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변화는 성경적 사고로의 변화에 두었는데 잘못된 행동의 변화는 성경적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하며 목회상담의 목표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

51) Sim I. McMillen, *None of These Diseases*, 문창수 역, 『현대의학과 성경』 (서울: 백합출판사, 1974), 185.

52) Martin Bobgan & Deider Bobgan,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53.

53)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217.

54) Martyn Lloyd-Jones, *Truth Unchanged*, 이종태 역, 『성서적 상담법』 (서울: 월간목회, 1977), 15-16.

55) McMillen, *None of These Diseases*, 124.

로 기독교 상담자는 언어폭력에 노출된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 받고 회복되며, 사랑하고 용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3)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는 장이 된다. 가정예배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가족이 하나 됨을 갖는 거룩한 행위이다. 따라서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정예배를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명이 있음을 의미한다.⁵⁶⁾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행위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천했던 신앙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가정예배를 드렸다(창 12:1-9, 13: 3-4). 족장 읍은 가족이 모일 때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욥 1:1-22). 아브라함은 가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갔으며, 욥 역시 가정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것이다. 가정예배는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예방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이다.⁵⁷⁾ 또한 가정예배는 개인과 가정의 영성성숙 위한 기본적인 신앙행위가 된다. 따라서 가정예배는 가정 내의 언어폭력으로 고통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회복, 치유, 그리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허물에 대해 기도형식을 빌어 고백하여 용서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예배가 가해자에게 회개하는 장을 만들어 주고,

56) Elton Trueblood, *The Common Ventures of Life* (Waco, TX.: Word Books, 1975), 53.

57) 권유순, 『성서적인 가정목회』 (서울: 보이스사, 1989), 112.

회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예배는 서로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갈라진 마음과 정서들을 하나로 결속 해 줄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이다.⁵⁸⁾

가정 내의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정서적 정신적 마음의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다. 가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가정예배를 통한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⁵⁹⁾ 상담자는 가정예배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회개 기도편지와 중보기도,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 가정은 몸과 마음의 치료에 장소로서 역할이 있다. 가정은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한다.⁶⁰⁾ 그러므로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과 치유, 그리고 영서성숙을 도모해야 한다. 가정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돕는다.⁶¹⁾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한 언어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고백 할 수 있게 된다.⁶²⁾ 가정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의 노출된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에게 회복과 위로, 사랑과 용서를 줄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이다. 가정예배는 언어폭력으로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행위이다(창 12:7-9, 13).⁶³⁾ 예배 심리학 측면에서 가정예배는 예배자의 기본육구로 죄책감의 용서, 불안감의 해소와 상한 감정의

58) Larry Christenson, *The Christian Family*, 강안삼 역,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4), 189-199.

59) 이수경, 『가정과 사회』 (서울: 동원사, 1994), 322.

60) 이강천, 『가정과 천국』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4), 106-107.

61)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15.

62)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진황 역,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1991), 63.

63) 최병남, “예배를 통해서 본 영성과 성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23권 (1998): 190.

치유, 그리고 슬픈 감정의 위로를 주는 행위가 된다.⁶⁴⁾ 그러므로 가정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치유와 성경적인 가치관 확립, 언어폭력으로 노출된 가정 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된다.⁶⁵⁾ 그러므로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성성숙과 자존감 상실, 정서적 학대, 수치심과 열등감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가정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III. 닫는 글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언어폭력을 지켜보는 다른 가정 구성원에게 정서적·영적 상처를 준다. 가정 내의 언어폭력은 다른 대인관계에서 당하는 언어폭력보다 더 많은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골3:19). 잠언기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을 예고했다(잠13:3). 성경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잠13:2), 언어를 주의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잠7:24). 성경은 과격할 말이 분노를 더 하며(잠15:1),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지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잠17:27). 기독교인은 더러운 욕설 즉, 언어폭력을 버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엡 4:29). 이상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과 경고의 말씀이다. Jay E. Adams(1975)는 *The Use of the Scripture in Counseling* 에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말씀의 권면에 절대적인 중요성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이 내담자의 치료와 회복을 주는 완벽한 능력이며 처방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Adams는 성령은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아주 적절한(adequate)” 도구로 삼으시는 분으로

64) 권유순, 『성서적인 가정목회』, 118-120.

65) Segler, *Christian Worship*, 104-105.

강조하였다.⁶⁶⁾ 언어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가정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말씀의 위로와 회복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자아통찰과 정서와 심리적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도우시는 분이시다.⁶⁷⁾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언어폭력의 노출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성령을 의지함과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상담하고 이 은혜의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고 권면해야만 한다.

66) Jay E. Adams, *The Use of the Scripture in Counseling*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5), 181-182.

67) Hiltner, *Pastoral Counseling*, 63.

【 참고문헌 】

- 고복자.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 정신의 학회지」(1992, 5): 56-72.
- 권복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1999, 3): 9-39.
- 권유순. 『성서적인 가정목회』. 서울: 보이스사, 1989.
- 김광일.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1998): 174-183.
- 김기환.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회복지조사연구」 제2호(1995): 26-45.
- 김병원.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성서대학교출판부, 2003.
- 김상인 편. 『상담심리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샘가, 2005.
- 김연옥 · 박인아.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제5호 (2000): 103-127.
- 김재엽.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1997): 30-40.
- 명성훈. 『중보기도학교 인도자용 지침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여성가족부 · 용인성폭력상담소 편.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서울: 용인성폭력상담소, 2007.
- 여성한국사회연수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5.
- 이강천. 『가정과 천국』.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4.
- 이수경. 『가정과 사회』. 서울: 동원사, 1994.
- 이혜임 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교육”. 『전문강의 매뉴얼』. 서울: 한국여성장애 인연합 여성부, 2004.
-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1.
- 전용복. 『생명력있는 기도 중보기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조미숙.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4호(1999): 295-325.

- 최병남. “예배를 통해서 본 영성과 성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 23권 (1998).
- Adams, Jay E. *The Use of the Scripture in Counseling*.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5.
- Benner, David G. “Psychotherapy & Christian Faith.” In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ed. Stanton L. Jones. Grand Rapids, MI.: Baker, 1986.
- Bobgan, Martin & Bodgan, Deider.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 Christenson, Larry. *The Christian Family*. 강안삼 역.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4.
- Crabb, Lawrence J.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1977.
- Dawson, Joy. *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 김세라 역.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경기도: 예수전도단, 1989.
- Hiltner, Seward.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상담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Lloyd-Jones, Martyn. *Truth Unchanged*. 이종태 역. 『성서적 상담법』. 서울: 월간목회, 1977.
- Lloyd-Jones, Martyn. *Healing and medicine*. 정득실 역.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McMillen, Sim I. *None of These Diseases*. 문창수 역. 『현대의학과 성경』. 서울: 백합출판사, 1974.
- Narramore, Clyde M.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Problems*. 김연 역. 『이상심리학 백과사전』. 서울: 보이스사, 1996.
- McMahan, Oliver. “Toward a Pentecostal Theology of Care and Counseling.” In *Soul Care*. eds. John Kie Vining & Edward E. Decker. East Rockaway, NY.: Cummings & Hathaway Publishers, 1996.
- Mowinckel, Sigmund.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 Reber, Arthur S. & Reber, Emily S.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3rd ed. London: Penguin Books, 1985.

- Seaman, David A.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 Segler, Franklin M.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진황 역. 『예배학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1991.
- Schiraldi, Glenn R. *The Self-Esteem Workbook*. Oakland, CA.:New Harbinger, 2001.
- Tarr, Del.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 Counseling*. Vol. I, *Theology & Theory*. eds.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5).
- Turnbull, Ralph G.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67.
- Thurneysen, Eduard. *A Theology of Pastoral Car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 Trueblood, Elton. *The Common Ventures of Life*. Waco, TX.: Word Book Publisher, 1975.
- “가정폭력이대로 좋은가”. 「미국 LA 중앙일보」, 2000.08.15.
- “언어폭력이 주먹보다 무섭다”. 「동아일보」, 1998.08.06.
- “이젠 노인에 대한 언어, 정서적 학대도 처벌 받는다”. 「전남조선뉴스」, 2011.03.12. 「국민일보」, 1997.05.14.
- 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조선일보홈페이지(<http://cafe.chosun.com>), “언어폭력”. 「조선까페」, 2008.04.24.

【 Abstract 】

The Christian Counseling for Verbal Violence in Family Member

Sang In Kim

Sungkyul University

The verbal violence in family member inflicts serious injury of mental, emotion, and spirituality on all of injurer and sufferer. This is mental cruelty beginning to mainly parent's nurturing attitude. In the verbal abuse Christians are no exception. The language violence has negative influence in faith life. The verbal violence brings spirituality immature to family member. Our society must solve verbal abuse in family member. A Language violence is major cause that have divorce. The aftereffect of verbal abuse can be serious more than body violence. A Parents thinks easily that do language violence to children. The verbal abuse in domestic makes language violence person. The verbal violence is meaning to blame, blasphemy, intimidation, threat, terror, disgust, contempt, yell, and disregard. Researcher explained the intra individual theories,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social cultural theories, and math media theories as cause of language abuse. Researcher researched violence in couple, abuse in parents and sons & daughters, violence in brothers and sisters as type verbal abuse. Researcher argued about the loss of self-regard, emotional mistreatment, shame and inferiority, verbal abuse injurer, and spirituality immature as result of language violence. Researcher discussed the intercessor prayer, Holy Spirit Comforter, read and write the Bible, and family worship service as the healing and recovery of verbal violence in family member.

Key words: verbal abuse, loss of self-regard, emotional mistreatment, intercessor prayer & Holy Spirit, family worship service